한국학연구 제62집 | 353~390쪽 | 2021.8.

해방기 김영수와 냉전*

-극단 신청년 작품을 중심으로-

김옥란**

〈차 례〉

1. 해방기 작가, 김영수
2. 대중극단 신청년, 해방기부터 전쟁기까지
3. 미군정기 '신청년'의 드라마, 〈상해야화〉·〈여사장〉·〈혈맥〉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김영수와 극단 신청년은 해방기를 대표하는 작가와 극단이다. 김영수의 극단 신청년 작품들은 미군정기와 단독정부 수립기를 배경으로 좌익 연극인들이 월북한 이후 중도파의 관점에서 해방기 현실에 대한 작품을 남겼다. 그러나 그동안 김영수에 대한 연극사적 평가는 유치진·오영진 중심의 반공우익 계열 연극인들의 평가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극단 신청년은 극협과 함께 해방기 대표적인 극단으로 활동했지만, 대중극단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제대로 된 연구가 부족했다. 김영수는 1947년부터 1948년까지 극단 신청년 전속작가로 활동하였다. 김영수의 대표작 <상해야화>, <여사장>, <혈맥>은 모두 극단 신청년 작품이다. 극단 신청년 활동시기는 남한 연극계가 우익연극인들로 재편되던 때였다. 극단 신청년 또한 우익 연극인 동원을 위한 관제 연극제인 문교부 주최 제1·2회 전국연극경연대회(1948, 1954)에 참가하였다. 그러나 1948년 <혈맥>을 실질적인 마지막 작품으로, 김영수의 극작 활동이 마감되는 것은 시사적이다. 김영수는 1949년 극단 신청년과 작가 생활 10년을 정리하며 소설집과 희곡집을 각각 펴낸다. 김영수의 대표작 세 편은 바로 이 희곡집 『혈맥』에 수록된 것으로, 대중극 영역에서 이 시기 냉전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 미군정기 여성 대중물의 인기, '미국 넘버원'의 세속화된 냉전 논리, 독립에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중도파의 윤리의식을 살펴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A2A03031971).

** 극동대학교 연극연기학과 조교수

[주제어] 김영수, 냉전, 해방기, 극단 신청년, 유엔군총사령부 방송(VUNC), <상해야화>, <여사장>, <혈맥>

1. 해방기 작가, 김영수

냉전 해체, 탈냉전이 화두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냉전 연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탈냉전과 냉전 이후 평화 기획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을 여는 일일 것이다. 우리에게 냉전은 어떤 의미였을까. 1949년 중국 공산화는 세계 냉전의 중심축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시켰고, 1950년 한국전쟁과 1964년 베트남 전쟁은 '냉전 속의 열전'이라는 문제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했다.[1] 따라서 국내 냉전 연구의 중심은 한국전쟁과 이후 냉전 질서 구축과정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냉전의 기원은 한국전쟁일까? 이 글은 해방 직후 좌우대립 시기, 월남과 월북이라는 선택 혹은 배제의 시기, 38도선을 경계로 미・소군정이 대치하고 있었던 해방기를 냉전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자 한다. 1990년대 들어 기밀 해제된 미국과 소련 냉전 자료들에 의하면, 한반도 냉전은 해방 공간에서부터 이미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었다.[2]

냉전사적 관점에서 해방기를 다시 바라봤을 때, 한국연극사에서 주목되는 단체는 극단 극예술협회(이하 극협)와 극단 신청년이다. 극협과 신청년은 해방기를 대표하는 두 극단이자,[3] 1948년 6월 문교부 주최 제1회 전국연극경

---

1) '냉전 속 열전'은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의 '냉전 아시아의 사상심리전 연구'의 중심 주제이고, 한국전쟁의 '판문점 체제'를 '평화기획'으로 전환시킨 김학재의 관점, 우리에게 냉전은 끝났는가라는 권헌익의 질문은 아시아 냉전, 한반도 냉전과 관련한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다. 백원담・강성현 편, 『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냉전 아시아의 사상심리전』, 진인진, 2017; 김학재, 『판문점 체제의 기원－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후마니타스, 2015; 권헌익, 이한중 역, 『또 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013.

2) 미국 냉전 사료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수집한 해외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 http://archive.history.go.kr)

3) 양승국은 해방기에 활동한 극단으로, 해방 직후인 1945년 민족예술무대(1945년 10월 이광래 중심 창단), 전선(1945년 11월 이화삼, 김동원, 이해랑 중심 창단), 그리고 1947년 극예술협회와 신청년을 꼽고 있다. 이중에서 극협과 신청년은 좌익측 조선연극동맹에 대응한 우익극단의 대표적인 극단들이다. 그러나 1948년 6월 미군정 포고령 제193호에 의하여 극장세가 3할에서 10할로 대폭 인상되어 신청년 등 대부분의 극단 활동이 중지되었고, 극협과 일부 대중 극단들만이 살아남았으며,

연대회 우수상 수상단체이다. 극협은 1945년 9월 조선연극건설본부, 1946년 12월 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 등 해방 직후 좌익연극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유치진을 중심으로 신극운동계의 이해랑, 김동원, 이화삼 등이 1947년 4월 창단한 극단이다. 창단 이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후원을 받아 활동하였고, 1950년 4월 유치진이 초대 극장장으로 임명되는 국립중앙극장(이하 국립극장)의 전속극단 신극협의회(이하 신협)로 계승되면서 1950년대 대표적인 극단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해방기 대표적인 극단으로 꼽히는 극단 신청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바가 없다. 연구자들의 관심 또한 적다.[4] 극단 신청년은 대중극단이기 때문이다. 극단 신청년은 영화 개봉관이었던 중앙극장을 중심 공연장으로, 연극・영화계 중진 배우들(김연실, 김복자, 김양춘, 최은희, 서월영, 박제행, 박경주 등)과 함께 극작가 김영수, 연출가 박진이 중심이 되어 1947년 10월 창단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1930년대 대표적인 대중극 공연장인 동양극장의 전속배우・연출가・작가였다.[5] 극단 신청년 창립공연은 김영수의 〈오남매〉(1947.10.)이다. 그리고 김영수의 대표작 〈상해야화〉(1948.3.), 〈여사장〉(1948.5.), 〈혈맥〉(1948.6.)이 모두 극단 신청년 작품이다. 극단 신청년

그마저도 관(官)・군(軍)・사회단체의 이름을 빌린 이른바 '관제 흥행'이 성했을 뿐이라고 평가한다. 양승국, 『한국현대극강론』, 연극과인간, 2019, 373~376쪽.

4) 극단 신청년 관련 연구는 별도로 없고, 김영수 연구는 주로 대표작 〈혈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양승국, 「1945~1953년의 남북한 희곡에 나타난 분단문학적 특질」, 『문학사와 비평』 1, 1991; 이상우, 「해방직후 좌우대립기의 희곡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양상－우익측의 유치진, 오영진, 김영수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2, 한국극예술학회, 1992; 전지니, 「1940년대 희곡연구－역사・지정학・청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전지니, 「김영수 작 〈혈맥〉(1948)의 변주양상 연구－영화 〈혈맥〉(1963)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등.

5) 동양극장(1935년 11월 1일 개관, 1976년 폐관, 1995년 철거)은 장르별 전속극단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현대극 전문의 청춘좌(연출가 박승희, 박진), 역사극 전문의 동극좌(연출가 홍해성), 희극 전문 희극좌가 그것이다. 김영수는 1936년 9월 희극좌와 동극좌가 합병하여 새로 출범한 호화선, 그리고 1941년 11월 진용을 재정비하여 재출범한 성군의 전속작가로 활동하였다. 배우 서월영과 박제행도 청춘좌 소속 배우였다.(양승국, 앞의 책, 246~253쪽) 김영수의 동양극장 전속작가 첫 작품은 〈사랑의 노래〉(3막4장, 필명 남해림, 홍해성 연출, 동양극장, 1939.10.)이다.(김유미, 『작가 김영수 1』, 민음사, 2002, 213~221쪽) 재미 소설가 김유미는 김영수의 딸이다. 『작가 김영수 1~2』는 딸이 쓴 김영수 평전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방송작가 유호, 영화감독 신상옥, 연출가 최창봉・임영웅, 성우 박현숙・이상만・이혜경, 배우 황정순・김동원, 그리고 위진록(유엔군 방송국 시절), 전세권 등을 인터뷰했음을 밝히고 있다.

의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은 김영수가 전속작가로 있었던 1947~1948년 단 1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이다. 이후 전쟁기에는 기존 레퍼토리 작품의 재공연이나 영화 각색극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1954년 이후에는 더 이상 공연활동을 찾아볼 수 없다. 극단 신청년 활동은 김영수 작품을 통해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영수(金永壽, 1911~1977)는 와세다대학교 영문학과 재학 시절 이미 이진순, 이해랑, 김동원 등과 함께 동경학생예술좌(1934~1940)를 결성하여 연극활동을 시작하였고, 1934년 희곡 〈광풍〉과 〈동맥〉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동시에 당선되었다. 귀국 후 1939년 소설 〈소복〉이 또 다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한 작가였다. 귀국 후 동경학생예술좌 멤버들과 함께 유치진의 극연좌에 잠시 몸담았으나 본격적인 극장 시스템과 훈련된 배우진을 갖춘 동양극장을 선택해 전속작가로 활동했다. 김영수가 극연좌보다 동양극장을 선택한 것은 극단의 명성보다 실제적인 제작 능력과 극장 시스템을 갖춘 곳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김영수의 작가적 태도를 보여준다.

극단 신청년 배우들과 연출가 박진은 동양극장 시기 함께 공연한 팀으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미군정 정책에 의한 입장세 10% 인상 등으로 경영난을 겪다가 한국전쟁을 맞아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김영수는 전쟁기 종군작가단 활동에 이어 1952~1959년 동경 유엔군총사령부 방송 근무로 연극계와 멀리 떨어져 있었고, 1959년 귀국 후에는 라디오 방송극 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김영수의 라디오 방송극 작가 활동은 이보다 훨씬 이전인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군정에 의해 관리되었던 1946년 서울중앙방송국에서 어린이 라디오 연속극 〈똘똘이의 모험〉 집필진에 참여한 것이 그것이다.[6] 그리고 뉴스와 뉴스해설을 드

6) 해방이 되고 1946년 4월 1일 서울중앙방송국은 미 군정청 공보부 직속으로 이관되었고, 미군 고문관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당시 서울중앙방송국 전속작가로는 김성민, 유호, 김희창, 이익, 한운사, 최요안이 활동하였고, 외부작가로 이서구, 박진, 진우촌, 김내성, 김영수가 참여하였다. 미군정기 프로그램들로 각종 강연, 강좌, 정당강연, 종교시간, 군정청 시간, 민주주의 해설, 청취자 문예, 신인연예, 똘똘이의 모험, 학생의 시간, 뉴스리뷰, 신작창극조, 시사해설, 스무고개, 천문만답,

라마 방식으로 전달하는 일일방송극 〈미군정청 아워〉 등에 대본작가로 참여하였다.[7] 김영수의 1946년 서울중앙방송국(Korean Broadcasting System, KBS) 작가 활동과, 1952~1959년 동경 유엔군총사령부 방송(Voice of United Nations Command, VUNC) 작가 활동은 해방기와 전쟁기 미군 심리전 활동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해방기 김영수의 활동에 좀더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김영수가 반공극을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여순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시나리오 〈성벽을 뚫고〉(한형모 감독, 국제극장, 1949.10.개봉)부터다.[8] 〈성벽을 뚫고〉는 대본이 남아있지 않다. 김영수가 어떤 계기로 반공극을 쓰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전에, 여순사건을 소재로 반공극을 집필한 것은 이채롭다. 해방기를 배경으로 한 반공극으로는 유치진의 〈나도 인간이 되련다〉(1953)[9]가 있다. 이 작품은 1949년 평양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아직 자료가 충분하지 않지만, 1949년은 남한에서 반공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하기 시작한 전환점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계기는 여순사건(1948.10.19.)을 꼽을 수 있다.[10] 대본이 남아있는 김영수의 반공극은 〈철뚝을 넘은 곳〉(1956)이 있

거리의 화제, 라디오 3면, 방송토론회, 방송학교, 우리의 살림, 방송희극 등 본격적인 미국식 프로그램이 방송되었다. 이중에서 김영수는 〈똘똘이의 모험〉, 〈군정청 시간〉 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똘똘이의 모험〉의 최초 집필은 랜돌프가 맡았고, 이후 김영수, 유호 등 많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4년 가까이 방송되면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이내수, 『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293~318쪽) 그러나 현재 〈똘똘이의 모험〉 대본은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마음의 전쟁' 본 연구팀에 의해 스탠포드대학교 후버아카이브에서 1948년 1회차 대본이 발굴되었다. 똘똘이와 친구 복남이가 북한 간첩에게 넘어갈 위기에 있는 '전기를 만드는 기계 설계도'를 지키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Korean Broadcasting System radio broadcast transcripts, Hoover Institution Archives) 해방기 남한의 전력 사항은 매우 안 좋았다. 당시 극장 광고신문에도 "정전시에는 자가발전함", "정전중에도 영사", "자가발전완비" 등의 안내 문구가 들어가 있을 정도였다. 전기를 훔치는 나쁜 도둑으로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을 지목하는 것은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에 대한 적개심으로 돌리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1948년의 이 대본은 시기상 김영수 집필대본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방송극 〈똘똘이의 모험〉이 해방기를 배경으로 소년 반공 드라마로 기획된 것임을 확인하게 해준다.

7) 김유미에 의하면, 김영수가 담당한 프로는 〈미군정청 아워〉, 〈미국인, 랜돌프〉(영어회화 시간으로 추정됨), 〈똘똘이의 모험〉, 〈일인드라마〉이다. 김유미, 『작가 김영수1』, 민음사, 2002, 253쪽, 269쪽.

8) 영화정보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참고 : https://www.kmdb.or.kr

9) 유치진, 『나도 인간이 되련다』, 진문사, 1953.

10)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탄생』, 도서출판선인, 2009. 참고.

다.[11] 해방기 이후 반공극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 김영수는 희곡뿐만 아니라 영화 시나리오, 라디오 방송극, 신문소설 연재, 잡지 발간 등 전방위적 문화 활동을 펼쳤다. 그의 전체적인 면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시기별, 장르별 연결고리들을 하나씩 검토해보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해방기 김영수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으로 우선 먼저 극단 신청년 활동시기를 주목해보고자 한다. 김영수의 극단 신청년 전속작가 활동시기는 1947년 10월부터 1948년 11월까지 만 1년간이다. 이 시기는 1948년 5월 총선거 전후, 곧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 시기이다. 여순사건 직전까지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이후 김영수는 실질적으로 희곡창작 활동을 마감한다. 따라서 김영수가 전속작가 활동을 마감하며 1949년 4월 희곡집 『혈맥』을 펴낸 것은 의미심장하다. 김영수는 희곡집 『혈맥』의 머리말에서 "극단이 모두 신파연극 판이 되고 연극 모리배의 난장판이 된다면"[12] 쓰고 싶은 때 작품을 써서 서랍 속에 넣어두고 때를 기다리겠다는 마지막 말을 덧붙인다. 김영수는 대중극단 전속작가이면서 '신파연극 판'에 대해서도, 연극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이권을 얻고 있는 '연극 모리배의 난장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은 과연 대중극 작가로서의 단순한 토로에 그치는 것일까? 이러한 태도는 주로 정치적인 배경에서 작가들이 선택하는 방식이다.[13]

따라서 이하에서는 해방기 극단 신청년 활동을 중심으로 냉전 초기 김영수의 작가적 입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해방기 작가로서 김영수를 다시 읽는 계기를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작품으로는 희곡

---

11) 김영수, 〈철뚝을 넘은 곳〉, 『문학예술』, 1956.3.

12) 김영수, 「서」, 『혈맥』, 영인서관, 1949, 3쪽.

13) 1949년 4월 시점 김영수의 심경은 새 신문연재 소설 〈파도〉의 '작가의 말'에서 그 일단을 짐작해볼 수 있다. "지금 우리들은 확실히 거세인 파도를 타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생활도 감정도 격심한 파도 위에서 밀리우고 부다끼고 있음을, 거리에서 가정에서 시시로 우리들은 감각하고 목격한다. 여기에는 허영도 가식도 기만도 있을 수가 없다. 다만 삶을 지향하는 '벌거숭이 인간'이 있을 뿐이다. 생활의 파도 위에서, 애정의 파도 위에서 오로지 사투하는 벌거숭이 인간의 진솔한 자태를 그려보고자 함이 나의 서투른 이 이야기의 숨은 의도다."(기사, 「신 연재소설 〈파도〉 예고」, 『경향신문』, 1949.4.15.) 여기서 '삶을 지향하는 벌거숭이 인간'의 관점, 곧 자연주의적 세계관은 김영수 작품세계 전체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작가의식이다.

집『혈맥』수록 작품 〈상해야화〉, 〈여사장〉, 〈혈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14][15]

2. 대중극단 신청년, 해방기부터 전쟁기까지

극단 신청년은 1947년 10월 〈오남매〉를 창립공연으로 창단되었다. 당시 외화 개봉관이었던 중앙극장을 중심 무대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는 연극전용 극장이 없었고, 대신 수도극장, 중앙극장, 동양극장, 단성사, 국제극장, 국도극장 등 영화관에서 연극이 공연되었다. 영화와 연극, 전쟁뉴스와 극영화·악극 공연이 연이어 공연되는 동시상연도 흔했다.[16] 극단 신청년은 중앙극장에서 초연하고 성남극장, 동도극장, 영보극장 등에서 재공연을 가졌다. 당시 영화 상영 관례에 따라 개봉관에서 재개봉관으로 무대를 옮겨가며 공연한 것이다. 영화와 연극 동시상연도 있었다. 한편 당시 같은 무대를 썼던 재개봉관 성남극장의 경우, '폭소왕 경연대회'의 타이틀로 경(經)연극, 황해도 배뱅이굿, 가요재담, 김윤심 만담, 서도민요 등을 공연하고 있어 당대 대중연예물이 활발히 공연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17] 극단 신청년은 연극공연 전문극단으로, 개봉·재개봉 영화관을 무대로 동시대 대중연예물인 악극단, 만담단, 영화 등과 경쟁하며 활동한 대중극단의 성격을 보여준다.

---

14) 〈상해야화(=반역자)〉, 〈여사장(=여사장 요안나)〉, 〈혈맥〉 세 작품은 다음 책들에 수록되어 있다. 김영수,『혈맥』, 영인서관, 1949.4; 김동권 편,『현대희곡작품집(해방기 : 1945~1950년) 1』, 서광학술자료사, 1994; 서연호·장원재 공편,『김영수 희곡·시나리오 선집 1, 2』, 연극과인간, 2007. 분석은 가장 최근 판본을 기준으로 하되, 누락·오탈자는 원본을 참고하였다. 당시 인쇄·제본상태가 불량하여 원본 및 영인본마다 각각 다른 누락 페이지가 있다.

15) 김영수의 희곡뿐만 아니라 방송·시나리오 대본은 현재 제대로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연구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김영수가 사장된 작가로 남아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장원재에 의해 방송·시나리오 대본이 발굴되어『김영수 희곡·시나리오 선집』(전 7권)(연극과인간, 2006; 2007)과『김영수 라디오 드라마 극본 선집』(전 2권)(한양대학교출판부, 2010)이 출간되어, 김영수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16) 영화와 연극, 악극 등 동시상연 관행은 1960년대 초까지 이어졌다. 극장 동시상연 관행에 대해서는 박선영,「1950년대 말~1960년대 초 극장의 영화 상영 관행－실연무대와 무대인사를 중심으로」,『한국극예술연구』56, 2017. 참고.

17) 광고,『경향신문』, 1948.1.23., 2쪽.

극단 신청년 공연목록은 신문광고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8]

[표1] 극단 신청년 공연 목록

	공연명	작가	연출가	극장	일시	비고
1	오남매(3막4장)	김영수	허홍	중앙극장 성남극장	1947.10.31. 1947.11.19.	창립공연
2	사랑의 가족(3막) *동시상연[본][19]	김영수	박진	단성사 중앙극장	1947.11.19. 1949.02.05.	*(1949)동시상연 〈초상화〉(1막, 풍자극, 남궁춘 작)
3	전장아 잘 있거라	이춘풍 번안・각색	(미상)	중앙극장	1947.12.16.	영화 〈참호〉 원작(중국)
4	탈주병(전막) *동시상연[부]	박용 각색	(미상)	중앙극장	1947.12.31.	*동시상연 : 영화 〈항일전 팔년〉(원명 : 충의지가(忠義之家))
5	애련기(4막)	김희소	김희소	동양극장	1948.01.23.	
6	사랑(3막)	김영수	박진	중앙극장 동도극장	1948.02.23. 1949.01.01.	
7	상해야화(3막)	김영수	박진	중앙극장 영보극장	1948.03.13. 1948.08.07.	3월15일 오후2시 전국중계방송
8	여사장(3막4장) 털보와 여사장(개제)	김영수	안종화 안종화 이광래 김영수	중앙극장 성남극장 부산극장 동양극장	1948.05.13. 1948.06.14. 1952.03.03. 1954.05.23.	
9	혈맥(3막4장)	김영수	박진	중앙극장 중앙극장 동도극장	1948.06.25. 1948.08.09. 1949.01.06.	제1회 문교부 주최 전국 연극경연대회 우수상 8월11일 오후2시 전국중계방송
10	가로등 *동시상연[부]	김영수	이진순	중앙극장	1948.09.17.	*동시상연 : 영화 〈카라반〉(게인즈버러 픽처, 영국)
11	사육신(4막6장)	김영수	박진	시공관 영보극장	1948.11.19. 1948.12.13.	주최 사육신묘보존회, 후원 경향신문사・학무국・공보실 창립 1주년 기념공연

18)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참고하였다. 그외 이진순 선집의 공연연보도 함께 대조하였다.(김의경・유인경 편, 「한국연극사 자료」, 『지촌 이진순 선집 1』, 연극과인간, 2010, 254~268쪽) 이진순 공연연보 중 〈운명(일명 곰)〉(김영수 작, 박진 연출, 시공관, 1953.02.04.)은 신문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목록에 반영하지 않았다. 1953년은 김영수가 일본에 있었던 때이다.

19) *동시상연[본]은 본 프로그램을, 동시상연[부]는 부 프로그램을 뜻한다.

12	송화강의 애수(3막) *동시상연[본]	홍개명 박진 각색	박진	부산극장 시공관	1952.02.17. 1953.01.12.	*(1952)동시상연 : 〈야수〉(The Hairy Ape, 미국)/〈애원의 섬〉(The Brothers, 영국) (1953)서울복귀공연
13	황금아(3막12장) (Golden－Boy)	크리포드 오데쓰 김광주 편역	이진순	부산극장	1952.04.16.	브로드웨이 히트작; 콜럼비아영화사 영화
14	먼동이 틀 때(4막) (일명 : 어린 생명)	소봉(小鳳) 원작 서항석 각색	서항석	동아극장	1953.06.05.	K・A・S/극단 신청년 합동대공연 : 연극과 쇼의 대호화 무대
15	격분(4막)	이원경	전창근	시공관	1954.03.12.	제2회 문교부 주최 전국연극경연대회

위의 표에서와 같이, 극단 신청년의 실질적인 활동 시기는 1947년 10월 창립공연 〈오남매〉에서부터 1948년 11월 창립 1주년 기념공연 〈사육신〉까지이다. 만 1년간 11편의 작품을 공연했다. 이중에서 8편이 김영수 작품이다. 아무리 대중극단 전속작가로 쓴 작품이라 해도 엄청난 다작의 필력이다. 〈탈주병〉 각색자 박용(朴勇), 〈애련기〉 작가 김희소(金喜笑)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김희소는 가명으로 보인다. 〈송화강의 애수〉는 부산 피난지 공연이다. 부산 피난 시기에는 미국・영국 영화와 동시상연하거나, 악극단과 합동공연을 하며 간신히 극단의 명맥을 유지했다.

극단 신청년 활동시기는 좌익 연극인들이 월북하고 우익 연극인들로 남한 연극계가 재편되던 시기이다. 참고로, 유치진의 해방 이후 첫 복귀작은 1947년 제2회 3・1연극제 참가작 〈조국〉(극단 전선)이다. 그리고 이 공연을 계기로 이해랑, 김동원, 이화삼, 박상익, 김선영 등과 함께 극협을 조직하고 창립공연 〈자명고〉를 올린 것이 1947년 5월이다. 〈자명고〉는 연극계에서 완전히 재기에 성공한 작품이라고 유치진 스스로 자평하는 작품이다.[20] 그런데 이 시기는 미군정 공보활동이 본격화된 때이다. 1947년 1월 주한미군사령부 공

20) "극예술협회가 단 한 번의 공연으로 연극계의 대표적인 극단으로 부각되었고, 그에 따라 나도 2년여 만에 연극계를 리드하는 위치로 자연스럽게 복귀한 것이다."(유치진, 『동랑 유치진 전집9－자서전』, 서울예대출판부, 1993, 181쪽)

보과 산하 특별참모부서로 '강연과'가 설치되어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재개를 앞두고, 좌익 선전에 대항하여 한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보활동이 남한 전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를 모태로 1947년 5월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Office of Civil Information, OCI)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1948년 제헌국회를 구성하는 5・10 총선거에 대비하여 계몽대와 유세반을 가동하여 열렬한 공보활동을 펼쳤다. 미공보원의 전신 '강연과'의 공보책임자, 그리고 미공보원장은 제임스 스튜어트(James L. Stewart)이다. 그런데 유치진은 제임스 스튜어트와의 오랜 친분관계를 자서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 이후 유치진은 우익연극인을 대표하며 주한미군사령부 공보원(OCI), 주한미대사관 공보원(United States Information Service, USIS), 미국민간 반공조직 아시아재단, 그리고 록펠러재단으로 이어지는 미국측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았다.[21] 해방 후 유치진의 복귀에는 냉전의 맥락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1947~1948년 연극계에 대한 진단은 연례 없는 침체와 공황, 완전한 질식 상태로 기록되고 있다.[22] 주요 연극인들의 대거 월북으로 인한 인력부족, 미군정 정책에 의한 입장세 인상으로 인한 관객 부족, 총선거를 앞둔 정치적 동원의 일상 속에서 해방기 연극은 급격히 해방의 열기와 활기를 잃었다. 유치진과 극협에게는 냉전의 기회와 혜택이 주어졌던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극단 신청년 활동에서도 냉전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다. 위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정 수립 이전 시기 동시상연 영화들은 주로 중국 영화들이고, 단정 수립 이후 동시상연 영화들은 주로 미국 영화들이다. 단정 수립 이전 중국 영화들은 중국인과 조선인이 공동의 목표로 항일

---

21) 해방기 미군정 공보기구와 활동에 대해서는 박수현, 「점령과 분단의 설득기구－미군정 공보기구의 변천(1945.8~1948.5)」,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92~127쪽. 미공보원 제임스 스튜어트와 유치진의 관계에 대해서는 김옥란, 「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 『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11, 139~146쪽.

22) 김진수, 「1948년 문화계 회고－연극－리알리즘과 지성의 상실」, 『경향신문』, 1948.12.22; 최규석, 「극계회고－활기 없는 극계, 자립극에 요망」, 『조선일보』, 1948.12.22., 2쪽.

전을 치렀던 항일전쟁 영화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 국민당 장개석이 추천하고 문교부가 승인한 '자매영화'로 1947년 11월 〈간첩천일호(間諜天一號)〉와 12월 〈항일전팔년(抗日戰八年)〉이 나란히 개봉되었다.[23] 〈항일전팔년〉의 원제목은 〈충의지가(忠義之家)〉로, 우용강(吳永剛, 오영강) 감독의 1946년 영화이다. 우용강 감독은 1907년 장쑤성 출생으로, 1930년대 상하이를 중심으로 활동한 2세대 영화감독이다. 국내 개봉 영화 〈항일전팔년〉의 신문광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일전팔년〉(〈간첩천일호〉 자매영화), 만원사례 장안인기집중, 중경영화승전 제2포(包) 작품, 장주석 특별추천・문교부 승인, 조선인 혁명투사・중국인 반일투사 공동 투쟁기, 조선인 혁명투사 특별출연."[24] 자매영화 〈간첩천일호〉의 원제목은 1945년 상하이에서 크게 흥행한 첩보영화 〈천자제일호(天字第一號)〉이다. 항일전쟁 당시 여성 스파이 '천자 제1호'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동명의 영화가 1964년 장잉(張英, 장영) 감독에 의해 대만 최초의 첩보영화로 제작되어 대만에서도 크게 흥행했다.[25] 이 영화들의 국내 개봉은, 중국 국민당 장개석과 이승만의 우익 정권을 지원하고 있었던 미군정의 이른바 '자유 아시아', '반공 아시아'의 냉전 기획을 읽게 한다. 해방기 검열 주체는 미군정 공보부이다.[26]

그리고 미국과 영국은 단정 수립 후 UN 결의를 통해 남한 정부를 인정하고 외교를 수립한 UN 승인국이다. 1948년 9월 개봉 영화 〈카라반(Caravan)〉은 "전후 최초의 영국영화"[27]로, 게인즈버러 영화사(Gainsborough Picture)가 제작한 1946년 작품이다(Arthur Crabtree 감독, 1946.6. 영국 개봉; 1949.8. 미국 개봉). 영국 게인즈버러 영화사(1924~1951)는 전쟁 중 일련의 멜로드라마로 흥행을 거두었다. 〈카라반〉은 집시 여인이 등장하는 멜

23) 「해방 후 최초의 중국영화 입하」, 『경향신문』, 1947.11.5., 2쪽.
24) 광고, 『경향신문』, 1948.1.7., 2쪽.
25) 林文淇, 「007電影問世五十週年回顧台語間諜片風潮」, 『放映週報』, 2013.7.5; 國家電影及視聽文化中心 : http://www.funscreen.com.tw/fan.asp?F_No=1034(접속일 : 2021.7.11.)
26) 미군정 검열이 관심을 기울인 영역은 언론과 영화였다. 특히 공보부 내 영화과를 별도로 설치하여, 미국 대중문화를 미점령국에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승희, 「공연법에 이르는 길-식민지 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 1945~1961」,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354~356쪽.
27) 광고, 『경향신문』, 1948.9.17., 2쪽.

로드라마이고, 1946년 영국에서 가장 흥행에 성공한 영화로 꼽힌다.[28] 그리고 1952년 2월 개봉 영화 〈야수(The Hairy Ape)〉는 유진 오닐 원작 희곡을 영화화한 작품이다(알프레드 산텔 감독, UNITED ARTISTS 제작, 1944. 윌리엄 벤딕스, 수잔 헤이워드 주연). 연극 〈황금아(Golden-Boy)〉(Clifford Odets 작, 1937)는 브로드웨이 흥행작이자 영화 흥행으로도 성공한 작품이다. 미국과 영국 영화들은 모두 자국 영화시장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들이다. 그만큼 상품성이 큰 작품들이다. 특히 미국 영화의 극장 점령으로, 연극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 〈먼동이 틀 때〉의 쇼단과의 합동공연의 경우처럼 연극 자체의 자생력도 잃어갔다. 미국 입장에서, 냉전은 아시아라는 새로운 시장의 확보를 의미했다.

극장에서 가능한 연극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역사극이거나, 반공연극일 뿐이었다. 박진이 직접 각색과 연출을 맡고 있는 〈송화강의 애수〉는 "사랑은 둘이나 조국은 둘일 수 없다. 사랑하는 그는 나를 어이하려는가? 공포에 떠는 송화강의 달밤이여!"[29]라는 광고문구로 보아 반공 멜로드라마인 듯하다. 송화강은 중국 동북지역 강 이름이다. 이 작품은 홍개명 원작이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정확한 출처는 찾을 수 없다. 참고로, 이 시기 홍개명 감독 영화 중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반공영화로는 〈전우〉(미공보원 제작, 1949.8.)가 있다. 이 작품의 필름은 남아있지 않지만 "공산학정에 시달리다 못해 월남한 두 형제가 구사일생으로 월남하여 형은 국군에, 아우는 경찰에 각기 투신하고 멸공전선에 앞장선다는 내용의 반공영화"[30]로 알려져 있다.

다음으로 극단 신청년이 극협과 함께 해방 이후 우익연극계의 대표적인 극단으로 알려진 데에는 문교부 주최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우수상 수상 경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는 당시 "신극단체와 신파단체를 혼동"하고 "번역극과 창작극을 무제한하게 참가"[31]시킨 것으로 비

28) 위키백과 참고.
29) 광고, 『조선일보』, 1953.1.13., 1쪽.
30) 홍개명(洪開明, 1906~미상)은 영화감독으로, 한국전쟁 중 납북되었다. 홍개명 감독 영화자료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참고 : https://www.kmdb.or.kr/db/per/00012242)(접속일 : 2021.7.11.)
31) 김진수, 「1948년 문화계 회고-연극-리알리즘과 지성의 상실」, 『경향신문』, 1948.12.22., 2쪽.

판받을 만큼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신극, 신파극, 악극 단체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그런데 연극제를 기획한 문교부 교화국 예술과는 처음부터 연극부(서항석, 유치진, 유형오)와 가극부 심사위원(이서구, 나운영, 이승학)을 두고 신극과 악극단체 모두를 연극제에 포함시킬 것을 알리고 있다.[32] 1948년 5월 발표된 광고에 의하면, 최종 심사위원은 서항석, 유치진, 이서구, 이헌구, 송석하, 이승학, 유형오이다. 서항석, 유치진, 이서구, 이헌구는 연극인이고, 송석하는 민속학자, 이승학은 음악인, 유형오는 정부 관리(연예관)이다.[33] 심사위원 면면을 보더라도 연극계 자율로만 움직였던 연극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후원은 경무부, 공보부, 상무부, 경향신문, 동아일보, 무대예술원, 서울시극장협회이다. 연극인과 극장협회, 정부, 언론사가 참여한 대대적인 행사였다. 연극제에는 총 10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참가단체와 작품은 다음과 같다.

문교부 주최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제1차. 동방예술좌, 〈백일홍 피는 집〉, 동양극장, 6.1.(7일간)

제2차. 호동, 〈이향(異鄕)〉, 중앙극장, 6.11.(7일간) (*〈황포강〉으로 작품 변경)

제3차. 극협, 〈포기〉, 시공관, 6.15.(6일간)(*〈검둥이는 서러워〉로 제목 변경)

제4차. 청춘극장, 〈백제성〉, 중앙극장, 6.18.(7일간)

제5차. 새별, 〈태극기 밑에서〉, 동양극장, 6.20.(6일간)(*〈백마강 달밤〉으로 작품변경)

제6차. 예문사가극부, 〈금단의 화원〉, 국도극장, 6.24.(7일간)

제7차. 백민, 〈절낭과 가실〉, 동양극장, 6.26.(6일간) (*공연기록 없음)

제8차. 신청년, 〈단층〉, 중앙극장, 6.25.(7일간) (*〈혈맥〉으로 작품변경)[34]

제9차. 백조, 〈흘러가는 인생선〉, 중앙극장, 7.2.(7일간)

---

32) 기사, 「제1회 연극경연대회를 개최」, 『조선일보』, 1948.1.30., 2쪽.

33) 이승학은 1949년 창립된 음악고등학원 원장으로 취임한다.(「음악고등학원 창립」, 『경향신문』, 1949.2.8., 3쪽) 유형오는 1962년 국립중앙극장 무대과장, 1966년 서울시립극장 임원, 1968년 문화공보부 산하 중앙국립극장 연예담당관으로 임명되고, 1975년 발족된 한국문예원에 부원장(원장 서항석)으로 임명되는 등의 경력을 보이는 연극·연예담당 관료이다.(신문 정부인사 동정란 참고)

34) 〈단층〉(3막4장)은 1939년 『인문평론』 수록작품 제목이기도 하다.(김영수, 〈단층〉, 『인문평론』, 1939.12.~1940.1.) 연극제 출품을 위해 대중극이 아닌 진지한 공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제10차. 태평양, 〈꿈꾸는 처녀〉, 중앙극장, 7.9.(7일간)[35] (*공연기록 없음)

그런데 아래의 표처럼,[36] 실제 신문광고로 확인할 수 있는 공연상황은 다소 다르다. 특히 악극단의 경우, 제때 신작을 창작하는 공연일시를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만큼 무리해서라도 연극단과 악극단 모두를 연극제에 참여시키고자 했던 의도를 알 수 있다.

[표2]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1948)

	공연명	작가	연출가	극단	극장	일시	수상[37]
1	백일홍 피는 집(3막5장)	이광래	이광래	동방예술좌	동양극장	6.04.	
2	황포강(3막4장)	홍개명	이진순	호동	중앙극장	6.11.	장치상
3	검둥이는 서러워(4막9장)	헤이워드 부부	허석	극협	시공관	6.14.	우수상
4	백제성(4막5장)	장정희	김춘광	청춘극장	중앙극장	6.18.	
5	백마강 달밤(2부)	김석민	남실	새별악극단	동양극장	6.23.	
6	금단의 화원(5막)	서항석	서항석	예문사가극부	국도극장	6.24.	(창립공연)
7	–	–	–	백민악극단	–	–	(공연기록無)
8	혈맥(3막4장)	김영수	박진	신청년	중앙극장	6.25.	작품상・연출상・연기상・우수상
9	흘러가는 인생선(人生船)(7경)	전옥	전옥	백조가극단	동양극장	9.29.	(예정일 7.2. 공연기록無)
10	(삼룡아 우지마라)(전후편)	김호연	수산	태평양가극단	중앙극장	7.20.	(예정일 7.9. 공연기록無)

35) 광고, 『경향신문』, 1948.5.29., 1쪽.

36) 아래 표에서 백민악극단의 경우, 해당시기 공연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태평양가극단의 경우, 예고되었던 〈꿈꾸는 처녀〉 대신 〈삼룡아 우지마라〉라는 작품이 공연되었다.

37) 구체적인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체상 : 없음 ▲작품상 : 김영수 〈혈맥〉 ▲연출상 : 박진 〈혈맥〉 ▲장치상 : 김정환 〈황포강〉 ▲연기상 : 김복자(신청년), 박제행(신청년), 이해랑(극협) ▲우수상 : 극협, 신청년 ▲장려상 : 예문사 가극부.(김의경・유인경 편, 『이진순 선집1』, 연극과인간, 2010, 59쪽) 작품상과 연출상, 연기상 모두를 극단 신청년이 수상했음에도 단체상을 없애고 우수상에 극협과 신청년을 선정한 것은 의아하다. 게다가 극협 참가작은 번역극이자 재공연작인 〈검둥이는 서러워〉(일명 〈포기(=포기와 베스)〉(헤이워드 부부 작)였다. 따라서 대회의 실질적인 대상은 극단 신청년의 〈혈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공연평에서도 극협의 수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준다고 안주는" 단체상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었다.(김진수, 「1948년 문화계 회고－연극－리알리즘과 지성의 상실」, 『경향신문』, 1948.12.22., 2쪽); 기사, 「예원까십」, 『경향신문』, 1948.10.22., 3쪽)

그런데 이 명단은 미군정이 5·10 총선거 선전을 위해 1948년 4월 동원한 문화계몽대 극단들과 겹친다.[38] 문화계몽대는 선거전을 위해 전국 각 도를 대상으로 극단을 배정하였다.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참가 단체들은 주로 서울에서 공연하고 있는 극단들임에도 '전국' 연극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곧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는 총선거 전후 우익연극인들의 동원을 통한 내부단속을 위한 관제 연극제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우익연극계의 위용을 과시하는 프로파간다 효과를 노리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1948년 12월에는 문화예술인 5백여 명의 초청 명단을 발표하며 '민족정신앙양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시공관, 1948.12.27.~28.)를 개최하였다.[39] 이는 "유엔의 대한민국 승인"[40]을 기념하는 행사였다. 이 5백여 명의 문화예술인 초청 명단에는 해방기에 활동하고 있는 전 연극인의 이름이 망라되어 있다. 김영수의 이름도 물론 확인된다.[41] 그리고 대회가 끝난 직후 12월 29일 발표된 '대회결정서'에는 좌익계열 신문·출판기관으로 잡지 『신천지』, 『민성』, 『문학』, 『신세대』, 그리고 출판사 백양당, 아문각을 인공(人共)의 "심장적 기관"[42]으로 지목하고 경고하는 협박이 들어있다.

이봉범에 따르면, 이 대회는 애초에 기대했던 것만큼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한다. 5백여 명의 많은 인원이 동원("초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우익인사 외에는 참여 정도가 저조했으며, 좌/우 대립 산물로 비대해진 민족주의 중도파 대부분은 여전히 관망하는 추세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대회는 문학예술계에서 내부냉전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실제로 이후 중도계열 문화기관의 폐쇄, 특히 '인공' 언론의 근원이며 조선문학가동

38) 총선거선전 문화계몽대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서울시-청춘극장, 황금좌, 신청년, 강남악극단, 새별악극단, 반도가극단, 나미라가극단, KPK ▲경기도-극단연극호, 대도회악극단, 제칠천국 ▲충북-백조가극단, 연극시장 ▲충남-무궁화악극단, 극우회 ▲강원-창극단연예사, 민성화랑합동극단 ▲경북-조선극장악극단, 혁신극단, 현대가극단 ▲경남-동해가극단, 극단 태평선, 극협 ▲전북-춘향악극단, 신민극장, 제일악극단 ▲전남-백민악극단, 협문극사, 조선악극단, 악원악극단합동(기사, 「문화소식」, 『경향신문』, 1948.4.11., 4쪽)

39) 기사, 「문화인궐기대회-각계 오백여 명을 초청」, 『동아일보』, 1948.12.25., 2쪽.

40) 기사, 「문화인의 총궐기」, 『동아일보』, 1948.12.26., 1쪽.

41) 김유미에 따르면, 김영수는 문화인등록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김유미, 앞의 책, 33~36쪽)

42) 기사, 「전국문인총궐기대회 제2일-대회결정서」, 『경향신문』, 1948.12.29., 4쪽.

맹의 공공연한 반(半)기관지로 지목된 서울신문사가 개편, 우익계에 장악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문학예술계 내부냉전을 공세적으로 확산시킨 결절점은 1년 후, 오영진이 관여하고 있었던 한국문화연구소가 개최한 종합예술제(시공관, 1949.12.3.~12.4.)이다. 이를 계기로 남한 문화지식인들은 전향, 월북, 저항(지하투쟁), 망명(밀항)의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되었다.[43] 같은 시기 김영수의 희곡 창작 활동이 마감되었다는 사실 또한 시사적이다.

문교부 주최 제2회 전국연극경연대회는 전쟁이 끝나고 환도 후 1954년 3월에 이어진다. 제1회 연극제가 총선거 전후 단정 수립 시기에 맞춰 거행되었다면, 제2회 연극제는 3·1절을 의식한 정치적 기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참가단체는 단 4곳으로 연극제의 위상은 위축되어 있다. 극단 신청년도 전속 작가·연출가였던 김영수와 박진의 이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이원경 작, 전창근 연출의 〈격분〉으로 참가하였다. 신작 공연으로는 극단 신청년의 마지막 작품이다.[44]

제2회 연극제에 대한 공연평 또한 비판적이다. "문교당국의 연극을 이해치 못한 미스 프랜으로 겨우 4개 극단만이 국가연례행사에 참가"했을 뿐이고, 그마저도 "극단 신협을 빼놓고는 최후 코스까지 도달 못하고 지리사산(支離四散)하였다"[45]는 평이다. 극단 신청년의 〈격분〉은 "작가의 이메이지는 격분하였지만 관객의 감수성은 조금도 격분하지 않았"[46]다는 평이다. 제

43) 이봉범, 「냉전과 월남지식인, 냉전문화기획자 오영진」,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 2016, 207~209쪽, 213~217쪽.

44) 제2회 전국연극경연대회 참가작은 다음과 같다.(심사위원 : 유치진, 서항석, 이헌구, 박진, 홍해성) ① 〈다정불심〉(3막7장) 박종화 원작, 박노홍 각색, 이진순 연출, 극단 공연극장, 시공관, 1954.3.2.~3.6. ② 〈은장도〉(4막) 윤방일 작, 이해랑 연출, 극단 신협, 시공관, 1954.3.7.~3.11. ③ 〈격분〉(4막) 이원경 작, 전창근 연출, 극단 신청년, 시공관, 1954.3.12.~3.16. ④ 〈북풍〉(4막) 고군작, 김승호 연출, 극단 배협, 시공관, 1954.3.17.~3.21.(기사, 「제1회(*제2회의 오기임－필자 주) 연극콩쿨 각 단체 레퍼토리」, 『경향신문』, 1954.3.1., 4쪽) 수상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상 : 신협(문교부장관상) ▲개인상 : 미술상 박석인(신협), 연기상 김동원(신협)·정민(공연)·정애란(신청년)·노재신(배협) ▲장려상 : 연출 이진순(공연극장)(기사, 「전국연극경연대회 7일 입상자를 발표」, 『조선일보』, 1954.4.10., 2쪽)

45) 윤방일, 「갑오년 연극운동 총결산－회고와 자성의 위치에서」, 『동아일보』, 1954.12.19., 4쪽.

46) 윤방일, 위의 글

1회 대회에서 작품상, 연출상, 연기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해방기 최고의 극단으로 인정받은 것에 비하면 급격한 위상 실추이다.

대신 새롭게 출범하는 한국연극학회 주최 전국대학연극경연대회가 연속 2회째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이는 유치진을 매개로 미국 민간 반공조직 아시아재단 지원에 의한 것이었음이 최근 냉전 연구로 밝혀진 바 있다.[47] 이 연극제는 한국연극학회라는 연극인들만의 자율적인 기구를 앞세운 것으로, 문교부 관리가 직접 연극제 기획과 심사에 관여하면서 관제 연극제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문교부 주최 전국연극경연대회에 비해 훨씬 고차원적 프로파간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동일한 시기 유치진이 사업을 벌였던 중·고등학교연극제 또한 아시아재단 지원 연극제이다. 당시 공연평에서 중·고등학교연극제는 극단 연극의 침체에 비해 성황을 이룬 것으로 주목받았다.[48] 문교부의 권위보다 유치진의 권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미군정기 '신청년'의 드라마, 〈상해야화〉·〈여사장〉·〈혈맥〉

희곡집『혈맥』작품들은 해방기, 더 구체적으로는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되기까지 미군정기를 배경으로 공연되었다. 이에 따라 희곡집 수록 〈상해야화〉, 〈여사장〉, 〈혈맥〉은 미군정기 작품들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작품들의 중심 주제어를 꼽아보자면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여성, 둘째 미국, 셋째 팔월의 주제가 그것이다.

---

47) 김옥란, 「냉전 센터의 기획, 유치진과 드라마센터-아시아재단 유치진·신협 파일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204쪽, 227쪽.

48) 김진수, 「갑오년 문화계 회고-활발한 학생극의 대두」, 『조선일보』, 1954.12.20., 4쪽.

1) 미군정기 대중극과 여성

김영수 작품에는 유난히 여성인물 캐릭터가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상해야화〉는 1940년 겨울 상해를 배경으로 독립투사 아버지와 아들인 월파선생과 혁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열고 닫는 인물은 혁이의 아내 미사이다. 반역자와 일본 밀정을 피스톨로 처단하는 것도 혁명가의 아내들인 미사와 은옥이다. 상해를 배경으로 일본 밀정과 헌병대가 독립투사를 추격・체포・감금・고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중경에서 상해로 잠입한 월파선생, 제1・2・3공작실 등 비밀 은신처가 등장하는 등 첩보물의 장르 관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시기 중국 첩보영화 〈간첩 천일호〉와 같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여성 스파이물의 성격을 보여준다.

〈여사장〉은 여성잡지를 출판하는 신여성문화사의 여사장 요안나가 주인공이다. 요안나는 "최고 학문을 하는 여성", "교양 있는 여성"(127쪽)[49]으로, 가부장적 남성문화를 반대하며 사내 연애를 금지하는 고지식한 모습으로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나 요안나는 마카오 용지를 내세워 요안나의 선심을 사려고 하는 오대봉 사장에게 쉽게 유혹당하지도 않고, 마지막 장면에서 "소위 문화사업이란 다만 마카오 종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127쪽)[50]라는 신입사원 용호의 말에 동의하며 단 한 페이지라도 제대로 된 잡지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선언을 한다. 이에 비해 이 작품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여사장〉(송태주 각본, 한형모 감독, 1959.12.개봉)의 마지막 장면은, 요안나가 용호에게 아예 잡지사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집안 살림을 하면서 남편 용호를 기다리며 생선찌개를 끓이고 있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변형되었다.[51] 1959년 각색된 영화가 훨씬 더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멜로드라마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

49) 이하 인용은 서연호・장원재 편, 『김영수 희곡・시나리오선집』에 따르며, 페이지만을 표기함.

50) "오선생 종이는 종이구, 또, 사랑은 사랑 아녜요? 종이하구 사랑허구 어떻게 바꿔지나요? 안 그래요? 호호호호."(124쪽)

51) 서연호・장원재 편, 『김영수 희곡시나리오 선집 4』, 연극과인간, 2006, 143~144쪽. 영화 〈여사장〉은 용호가 부산 피난지에서 만난 전쟁미망인 혜련이라는 인물을 새로 등장시켜, 요안나・용호・혜련의 삼각관계의 멜로드라마적 구조 또한 강화하고 있다.

다. 반면에 1948년 원작 희곡은 해방 공간을 배경으로 용지난, 자금난을 겪으면서도 건국의 열기에 동참하며 여성잡지를 계속 만들어가는 요안나의 결말로 끝난다.

전지니는, 〈여사장〉은 "미국문화에 물든 지식인들의 허위 근성을 비판하는 작품"[52]이고, 여사장 요안나는 신입사원 김용호에 의해 감화되는 인물, 곧 "남성-조선적-민족주의적 가치가 승리하고 요안나가 상징하는 미국적-개인주의는 패배"[53]한 것으로 분석한다. 요안나를 통해 부정적인 미국 표상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공연에서 희화화되고 풍자되고 있는 것은 비단 요안나만이 아니다. 이 공연은 코미디이다. 입담 좋은 여기자들, 고추장 냄새 풍기는 벤또 때문에 항상 구박을 당하고 출판기념회에서도 잡채 타령만 하는 '골동품' 편집주임 등 '인물에 의한 희극'과, 신입사원 채용면접에 몰려든 힘없고 패기 없는 청년들("청년들이 왜 그렇게 하나 같이 비굴할까?" 72쪽), 매번 온다고 하고 안 오는 마카오 용지 등 '상황에 의한 희극' 등 희극적 극작술이 정교하게 구사되고 있다. 요안나는 꼴푸 오사장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고, 두꺼비 김용호의 도발에도 쉽게 꺽이지 않는다. 사내 연애금지 규칙은 여기자의 경력유지를 위한 조치였고, 십남매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편집주임도 쉽게 해고하지 않는다. 희화화된 여성인물이라고 해서 이 작품이 요안나를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사장 요안나는 중견급 여배우가 맡는 역할이고 희극적 인물이라 하더라도 주인공으로서 균형감과 입체성을 갖추고 있다.[54]

〈혈맥〉 또한 1947년 성북동 언덕 아래 제1·2·3 방공호를 중심으로 털보영감, 깡통영감, 원팔 집안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의 노모, 부인, 딸, 양공주 등 여성인물들 또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북 출신 피난

52) 전지니, 앞의 글, 2012, 184쪽.
53) 전지니, 위의 글, 184쪽.
54) 초연 캐스팅은 확인할 수 없지만, 1952년 부산극장 공연 당시 캐스팅은 다음과 같다. 여사장(요한나) : 김복자, 털보(김용호) : 박경주, 총무국장(김마리) : 진랑, 편집국장(임수진) : 송미남, 여기자(미스 장) : 최지애/노재신(더블), 남기자(양군) : 박경, 편집주임(최씨) : 서월영, 입사지원자 : 유일수, 차종웅, 양진, 급사(동수) : 정길성, 꼴푸(오대봉) : 현지섭, 외 학부연기자 찬조출연(광고, 『동아일보』, 1952.3.1., 2쪽)

민으로 나오는 옥매, 청진계집, 원팔의 노모와 폐병환자 아내 한씨는 원산에서 함흥·청진·서울로 흘러들어온 월남 피난민, 그리고 일제 시대 일본 규슈(九州, 구주) 탄광으로 징용 끌려갔다가 해방이 되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해방 난민의 삶을 직접 대변하는 인물들이다. 그리고 옥매의 신고산 타령, 노모의 찬송가 소리는 극중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강한 정서적 울림을 준다. 옥매에게 밤마다 신고산 타령을 배우는 복순이, '핼로껄' 백옥희가 파나마모자·빨강넥타이·누렁바지의 손님들을 이끌고 차례대로 무대를 가로질러가고, 폐병을 앓고 있는 한씨는 무대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공간에 짙게 죽음의 그림자를 들여오고 있다. 마지막에 죽어서야 이 공간에서 벗어나는 한씨의 존재는 이 공간을 그야말로 "지옥"(222쪽)처럼 느껴지게 한다.

김영수 작품에 유난히 여성인물 캐릭터가 생생한 이유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먼저 극단 신청년은 중견 여배우를 중심으로 창단된 극단이다. 창립공연 〈오남매〉 신문광고 또한 극단 여배우 사진이 강조되고 있다([그림1]).[55]

[그림1] 극단 신청년 창립공연 〈오남매〉 광고
(사진 왼쪽부터 서월영, 김연실, 김양춘, 김복자, 최은희, 노재신, 강보금, 송미남, 박경주)

당시 기사 또한, 극단 신청년은 "연극영화계의 노장 여인군으로 편성"[56] 되었다고 소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극단 신청년은 1930년대 동양극장 청춘좌의 성격을 잇는 단체로, 젊은 청춘 남녀를 관객 대상으로 현대적인 소

55) 광고, 『동아일보』, 1947.10.31., 2쪽.
56) 기사, 「신청년 3회 공연」, 『경향신문』, 1948.1.1., 3쪽.

재의 연극을 다루는 극단이다. 이는 유치진의 극협 레퍼토리가 〈별〉, 원술랑〉, 〈자명고〉 등 역사극으로, 악극단 역사물 공연과 장르상 겹쳐지는 것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극단 신청년 전속작가 김영수는, 극단의 주요 구성원인 여배우 중심의 극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다.[57] 그리고 김영수는 단순히 여성이 주인공인 극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여성 캐릭터를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이유 외에도, 여성인물은 김영수 작품의 중심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김영수의 소설 등단작 〈소복〉의 원제는 '용녀'였고, 인력거꾼 늙은 남편의 젊은 아내 용녀가 밤마다 밤마실을 나가 성욕을 채우는 이야기다.[58] 이 작품은 환경・계급・성(性)의 세계를 다루는 자연주의적 작품으로, 소설과 희곡을 막론하고 김영수 작품세계의 중심 주제를 보여주고 있다. 에밀 졸라의 소설 〈테레즈 라캥〉, 아우구스트 스트린드베리의 희곡 〈미스 줄리〉 등의 경우에서처럼 자연주의 작품 속에서 여성은 문제적인 인물이다. 여성인물에 대한 태도에서 김영수는 유치진의 계몽주의적 태도보다는 김우진의 〈이영녀〉처럼 자연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요컨대 김영수 작품에서 여성인물은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김영수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수는 일제 말기 조선일보사 학예부 기자, 고려영화사 선전부장을 거쳐 해방 직후 조풍연, 윤석중, 최영수, 박계주와 함께 고려문화사를 설립하고 『민성』(1945년 12월 창간)의 편집국장, 『어린이신문』의 주필을 맡아 잡지를 출판했다.[59] 잡지 출판의 경험은 1947년 소설 〈행렬〉에도 반영되어 있다. 곧 여사장 요안나는, 소설 〈행렬〉 속의 주인공 현과 마찬가지로, 작가 김영수 자신을 투영한 인물이다. 김영수는 극단 신청년 작품에서 대중 서사물의 여성 인물을 통해서 당대 현실에 대한 논평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해방기,

---

57) 희곡집 『혈맥』 서문에서, 김영수는 전속작가의 어려움으로 흥행을 생각해야 하고, 배역을 미리 생각해야 하고, 무대장치・소도구・의상 등 실제 제작 현실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들고 있다.(1쪽)

58) "이 작품을 단지 에로티즘의 작품이라고 일소에 부쳐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한 작가는 육욕의 세계도, 식욕의 세계도, 어떠한 인생의 자태라도 그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거치른 문장이면서도 뒷골목의 속어를 담뿍 가지고 독자를 끌고 나가는 것도 독특한 점이 있다."(기사, 「신간평－소복」, 『경향신문』, 1949.5.1., 4쪽)

59) 김유미, 앞의 책, 258쪽.

더 구체적으로는 미군정기에 대한 김영수의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다음 절의 미국에 대한 태도, 미군정기 해방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2) 미국 넘버원, 세속화된 냉전 논리

〈상해야화〉가 공연된 시점은 1948년 5・10 총선거 선거전을 위한 문화계 몽대에 극단들이 동원되던 시기이다. 〈상해야화〉는 1940년 상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해방기 현실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김구를 연상시키는 월파선생의 무기력, 일본에 협력하는 '반역자' 아들 혁이의 설정은 미군정기를 배경으로 했을 때 좀더 적극적인 읽기가 가능해진다.

현대물을 주로 쓰는 김영수는 갑자기 왜 1940년 상해를 소환하고 있을까. 〈상해야화〉는 월파선생과 혁이 일가가 상해로 건너와 독립운동을 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혁이는 "혁명생활 십년"(139쪽)에 무력감과 회의를 느낀다. 이는 해방은 되었으나, 여전히 독립의 염원을 이루지 못한 채 남한만의 단독정부 구성을 위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작가 김영수의 무력감을 읽게 한다. 3막에서 간절하게 바라던 "언제나 이렇게 한바탕 종로 네거리의 인경을 맘 놓고 쳐본담."(194쪽)[60]이라는 염원은 1948년 공연 시점에선 1945년 8・15 그날의 순간으로 이미 체험한 것이다. 곧 이 작품은 관객들로 하여금 해방의 그 순간을 강력하게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1948년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상해의 아버지'는 무력할 뿐이며, 아들들은 독립의 염원을 '반역'하고 있다. 반역자 아들들(혁이와 일본 밀정 최가)을 쏘는 미사와 은옥의 행동은 왜곡되고 있는 해방기 현실에 대한 대중들의, 그리고 작가 김영수의 무의식적 분노를 반영하고 있다.

〈여사장〉은 해방의 열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잡지사 편집실이라는 극중 배경 자체가 해방의 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공간이

60) 해방 팔월의 주제로 종로 네거리 인경소리 모티브는 〈혈맥〉에도 나타난다. "우리들은 모두 팔월로 돌아가야 해! 팔월… 팔월… 독립…! 그때 우리들 눈앞에 있던 건 다만 이것뿐이었어… 인젠, 우리들은 왜놈의 종이 아니다! 사슬은 끊어졌다! 태극기를 달아라! 잉경을 쳐라!"(〈혈맥〉, 217쪽)

다. 김영수는 소설 〈행렬〉[61]에서 "좌도 아니구, 우도 아닌 잡지"(32쪽)를 만들고 있는 잡지사 주인공 '현'을 등장시키고 있다. 현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입장 때문에 '동맹'의 친구 S로부터도, 우익측으로부터 "회색분자", "기회주의자"(33쪽)로 비난받고 있다. 현은 시민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빨갱이"(34쪽)라는 아내의 만류에도 동맹측 시민대회의 긴 행렬에 참여한다. 〈여사장〉의 잡지사 여사장 요안나가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태도, 그럼에도 마지막에 용호의 주장에 동의하는 결말은 소설 〈행렬〉에서 이미 보여준 주제이다.

공연은 신여성사의 "업무 대확장, 기자 다수 채용"(57쪽) 공고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신입사원 채용면접에 찾아온 지원자들은 하나 같이 패기가 없거나,("청년들이 왜 그렇게 하나 같이 비굴헐까?" 72쪽) 건국사업을 운운하며 "두 주먹을 부르쥐고", "삼천리 우리 강토와" 같은 구호만을 외치거나,(73쪽) 부유한 집안 덕에 일본의 대학을 둘씩이나 나온 모던뽀이는 전공이 영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셰익스피어 〈햄릿〉의 유명 대사 하나 알지 못한다.(76쪽) 그리고 마지막 지원자 김용호는 요즘 여자들은 "모두 뱃대깃 속에 바람만"(77쪽) 잔뜩 들었다고 안하무인이다.

또한 〈여사장〉의 첫 장면은 해방기 정치적 맥락을 암시하면서 의미심장하게 시작하고 있다. 첫 장면은 잡지사 급사 동수가 고구마, 호떡, 도나쓰 등 간식거리를 사러 심부름 가는 장면이다. 동수는 계산이 헷갈려 모두 호떡으로 통일해버리자고 말하자, 총무국장 미스김은 "그렇게 쉽게 통일이 되면 걱정이 없게?"(50쪽) 코웃음을 친다. 이렇듯 〈여사장〉 극 초반은 '통일', '문화인'(51쪽), '불량성년'(57쪽), '명랑'(61쪽), 원고검열의 '붉은 줄'(90쪽) 등 정치사회적 이슈들을 건드리며 작품에 긴장감을 던져준다. 희곡집 『혈맥』 서문에서, 김영수는 이 작품에 대해 "좀더 씨니컬한 점을 고조하지 못한 것"[62]을 대중극단 전속작가의 일종의 타협의 결과라고 자책하고 있다. 대중극 명랑코미디 장르이지만 시사풍자극을 의도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발언이다.

---

61) 김영수, 〈행렬〉, 『백민』, 1947.3. 이하 인용은 작품의 페이지만을 인용함.
62) 김영수, 『혈맥』, 영인서관, 1949, 2쪽.

중심 갈등 구도를 이루는 홍콩 무역상, 이른바 '마카오신사'[63] 오대봉 사장이 '마카오 용지만 들어오면 얼마든지 잡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입장과 '두꺼비'[64] 신입사원 김용호가 '잡지란 마카오 종이만 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의 대결구도를 이루게 하는 용지난도 해방기에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였다. 실제로 신여성문화사는 인쇄소에 줄 종이가 없어 4개월째 휴간상태로, 문교부의 허가 취소 압박을 받고 있다. 해방기뿐만 아니라 1950년대까지도 용지공급 문제는 심각했다. 이 시기 용지공급은 미국의 대한원조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65]

잡지를 찍어낼 종이가 없어 휴간을 거듭하고 있고, 마카오 용지를 거래하는 오사장은 미군정과 결탁한 모리배일 뿐이고(그의 별명은 접대를 의미하는 '꼴푸'이다), 용호의 말처럼 단 한 페이지라도 우리 손으로 잡지를 만들자는 말과 달리 잡지 출판은 전적으로 외부 원조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었다. 해방기 잡지 열풍의 또 다른 현실은 창간호를 내고 바로 폐간하는 일의 연속이었다.[66] 〈여사장〉은 명랑 코미디의 결말답게 무사히 잡지가 나오고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끝나지만, 용지공급이 계속 원활하지 않다면, 다음 호를 내지 못하고 또다시 폐간될 운명인 것이다. 미군정의 미국영화 수입 중심 문화정책으로 인해, 극단 자체의 힘만으로 버티고 있었던 극단 신청년이 1년을 버티다 결국 해산된 것과 같은 운명이다.

---

63) '마카오신사'라는 말은 해방 이후 만들어진 말이다. 1947년 3월 17일 인천항에 페리오드호가 입항하였고 이때 마카오에서 생고무와 양복지와 신문용지 2천 톤을 싣고 들어왔다고 한다. 이후로 마카오 무역, 마카오신사라는 말이 유행했다. 이후 이 말은 마카오와 홍콩 무역상을 가르키는 말로, 비싼 외국제 밀수 양복을 차려입는 신사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이용득, 「이용득의 부산항 이야기 42－마카오 신사」, 『국제신문』, 2016.7.17.) 마카오신사는 1950년대 한복남의 유행가 〈빈대떡신사〉(1955)에서 돈이 없어 요리집 문 앞에서 매를 맞는 양복 입은 신사의 모습으로 "으하하하 우습다 이히히히 우습다"의 웃음의 대상으로 풍자되고도 있다.

64) '두꺼비'는 명랑풍자만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1955년 『경향신문』에 김경언, 안의섭에 의해 연재되었고, 1962년부터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다시 『경향신문』 등에, 1973년부터는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다. 〈두꺼비〉는 30~40대의 나이에, 회사의 평범한 말단사원으로, 직선적인 풍자, 통쾌한 해학, 거친 입심으로 소시민의 심정을 대변하면서, 김성환 화백의 〈고바우영감〉과 함께 한국 시사만화의 쌍벽을 이뤘다. 한국만화100주년 시사만화위원회, 『한국 시사만화 100년』, 알다, 2010, 16~17쪽.

65)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255~256쪽.

66) 김영희, 『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264~266쪽.

이렇듯 외부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원조경제의 불균형과 친일로 이권을 챙기던 이들이 미군정과 결탁해 비정상적인 부를 축적하던 비윤리의 문제는 〈혈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전면화된다. 〈혈맥〉에서 가장 미국적인 것을 대변하는 인물은 '핼로껄'(190쪽), 곧 양공주 백옥희이다. 옥희는 같은 방공호 출신으로, 수표다리 우동집 갈보('식당껄')를 거쳐 미군부대 댄스홀 댄서가 되었다. 그리고 밤마다 파나마모자, 빨강넥타이, 누렁바지 손님들을 데리고 들어온다. 파나마모자는 일명 마카오신사를, 빨강넥타이는 미군정 관공서를 들락거리는 모리배꾼을, 누렁바지는 맥아더 장군의 군복 바지를 연상시키는 미군의 존재를 암시한다. 옥희는 원칠에게 이곳은 더럽고, 어둡고, 냄새나는 "쓰레기통"(221쪽), "지옥"(222쪽)이라고 말하며 어서 여길 빠져나오라고 말한다. 원칠은 옥희도 이곳에 살았고, 이곳에서 나왔고, 이 땅굴은 "미국두, 중국두, 소련두 아니"(222쪽)고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옥희는 끝내 이곳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은 "남양땐스홀의 넘버원!"(222쪽)이고, 그곳의 삶은 이곳과 달리 "꿈나라"(221쪽)와 같다고 술에 취해서 말한다. '넘버원'은 수입이 제일 많은 것이고, "상해서 나온 매리를 넉아울시키고"(220쪽) 자신이 바로 넘버원이라고 말한다. 옥희가 말하는 '넘버원'은 해방기 '미국 넘버원'의 상황을 가리킨다.

'상해서 돌아온 아버지' 김구가 '미국서 돌아온 아버지' 이승만에게 넉아웃당하고, 민족의 독립(혹은 통일)은 왜곡되고 있고, 미군정 아래 중국·소련에 대한 반공산주의 논리로 우리 내부의 빨갱이를 소탕하는 내부냉전이 폭력적으로 진행되던 시기, 게다가 이 방공굴 사람들은 일본 탄광 징용에서 돌아오거나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해방 난민들이다. 해방을 통해 새로운 건국의 희망으로 가득 찼던 이들에게는 지독한 역설의 시대이다. 이들은 각자도생의 지옥 속에 있다. 복덕방 영감 털보는 옥희가 말하는 '미국 넘버원'의 사회적 생존 논리를 그 누구보다 빨리 학습하고 체화한 인물이다. 그는 아들 거북이에게 야학이라도 다녀서 어서 빨리 영어를 배워 시흥 미군부대에 들어가서 "고기니, 실과니 그 사람네들 먹구 내버리는 턱찌끼만 글어뫄서 내와두"(175쪽) 큰돈을 벌어 팔자를 고칠 수 있다고 닦달이다. 미군부대에 들어가는 것

은 곧 돈방석에 앉는 일이라고 큰소리친다.

그리고 이 방공굴이 자리 잡은 언덕 상하수로는 매일 아침과 저녁 “보퉁이 혹은 커단 미군배급상자”(239쪽)를 들고 나르는 야미장수가 지나간다. 원팔 또한 양담배 목판장수이고, 어린 복순이와 거북이도 미군양말과 만년필을 파는 보따리 야미장수이다. 이들의 밥벌이가 모두 미군배급상자나 구호품, 미군부대에서 찌꺼기를 얻어온 것이거나 밀수품들이다. ‘미국 넘버원’의 세계는 해방기 일반 대중들의 생존 논리일 수밖에 없었던 원조경제의 한 풍경을 보여준다. 곧 ‘미국 넘버원’은 대중적 차원의 냉전 논리, 세속화된 냉전 논리의 구체적인 일상 풍경을 보여준다.

그러나 〈상해야화〉에서 미사가 민족반역자를 처단하고, 〈여사장〉에서 요안나가 외부 원조의 요행을 바라지 않고 건실하게 잡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혈맥〉에서 원칠이 옥희가 선물로 주는 미군양말을 거절하고, 친일미군 모리배 진국이처럼 되라는 형 원팔의 현실주의적 순응주의를 거부하는 모습은 마지막까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았던 작가 김영수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독립에의 염원은, 대중의 염원을 반영하는 대중극에서 가능한 최대치를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해야화〉와 〈여사장〉에서 대중 스파이물과 코미디 장르에 의존해 그나마 가능했던 의지의 영역이 〈혈맥〉에서는 암울한 지옥도만으로 제시되고 있다.

3) 팔월의 주제, 냉전기 중도파의 위치

마지막으로 희곡집 『혈맥』의 세 작품을 묶는 공통적인 주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팔월, 곧 1945년 8월 해방 그날의 정신을 다시 환기시키는 것이다. 특히 이 작품들에는 일종의 팔월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시(詩)가 들어가 있다. 〈상해야화〉 마지막 장면에서 월파선생은 목청을 높여 시조를 읊는다. 대본에 별도의 시조 제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공연에서 어떤 시조를 읊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월파선생이 ‘상해의 아버지’, 곧 김구 선생이라고 했을 때 그의 애송시로 널리 알려진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67]

를 떠올릴 수 있다. 월파선생은 정면을 바라보며 “아아 언제나 조선의 새벽은 밝아온단 말이냐?”(206쪽) 단 한마디를 남기고 “그냥 시조를 읊을 뿐”(207쪽)이다. 3막의 극중 시간 배경은 달 밝은 밤이고, 〈상해야화〉의 제목 ‘야화(夜話)’의 밤, 그리고 시조 ‘설야(雪夜)’의 밤(夜) 이미지는 서로 연결되고 있다.

극중에서 월파선생은 비록 행동은 거세되어 있지만, 김구의 애송시를 읊는 단 한 장면으로라도 관객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시조 제목을 희곡대본에 노출하지 않은 것은 검열을 의식한 행동으로 보인다. 김구는 1948년 2월 10일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함」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지고야 땅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아니하겠다”[68]는 통일된 조국 건설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호소하고 있다. 〈상해야화〉 공연 시작일은 한 달 뒤인 3월 13일이었다. 1940년 상해를 배경으로 한 임시정부 김구 이야기는 역사극이면서, 동시에 해방 정국을 배경으로 한 현재진행형의 일이었다. 이 시기는 대중들의 팔월과 독립의 염원이 미군정 하에서 폭력적으로 좌절되는 과정이기도 했다.

팔월의 노래, 곧 작품 속 시 인용과 관련하여 〈여사장〉에서도 주목되는 장면이 있다. 『신여성』 신춘특대호 발행 축하연 자리에서 요안나는 김소월의 시 〈초혼〉을 읊는다. 요안나는, 꼴푸 오사장이 일본 노래를 부르겠다는 것도 만류하고, 평양 수심가를 부르겠다는 것도 만류하고 김소월의 시를 낭송한다. 암송이 끝나자 요안나와 여기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긴다.”(117쪽) 무대위에 의미심장한 침묵의 시간이 흐른다. 김소월은 대표적인 민족시인이다.

〈혈맥〉에서도 시 한 편이 낭송된다. 김기림의 시 〈우리들의 팔월로 돌아

67) “踏雪野中去(답설야중거) 不須胡亂行(불수호란행) 今日我行跡金(금일아행적) 遂作後人程(수작후인정)”(눈덮힌 들판을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어지러이 하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취가, 반듯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양연의 시조로, 『백범일지』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졌다. 백범 김구의 친필 글씨도 남아 있어 복사판으로 일반가정의 거실이나 서재의 족자로도 흔히 걸려 있었다.

68) 백범사상연구소 편, 『백범어록』, 사계절, 1973; 1995 2판, 153쪽, 154쪽.

가자〉(『바다와 나비』, 신문화연구소, 1946)가 그것이다. 김기림은 해방 직후 조선문학가동맹(1945.12.6.)에서 활동한 좌익 문인이다. 그러나 1947년 말, 1948년 초 문맹측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월북하고, 남아있는 중도파의 현실적 입지는 더 좁아졌다. 여운형 암살(1947.7.19.) 이후 좌우합작의 꿈 또한 더 이상 불가능했다.[69] 그리고 1949년 12월 오영진이 기획한 한국문화연구소의 종합예술제에서 '이북문화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김기림의 이름이 보이면서 국민보도연맹과 관련한 전향 문인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확인하게 된다.[70]

단정수립 전후 중도파로서 현실적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혈맥〉의 원칠이, 그리고 작가 김영수 자신의 위치이기도 하다. 원칠은 극 초반 경찰에 5일간 구류되었다가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다. 이상우는, 김영수의 해방기 소설 〈행렬〉(『백민』, 1947.3.)을 인용하며 그를 "좌도 우도 아닌 중간파 지식인", 즉 "중도 우파적 입장"[71]을 가진 작가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희곡 〈혈맥〉에서 "현실적인 생활의 논리를 내세우는 원팔의 담화에 독립이라는 이상적 논리를 고집하는 원칠은 무력"하며, "도저한 생활 현실의 치열한 무게에 이념적 주의 주장도 그 당위의 힘이 약화되고 만다"[72]고 평가한다. 해방기 중도파를 우파적 입장으로 분류하고, 중도파 또한 우파와 마찬가지로 해방기 현실인식에 무력하고 소외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김영수가 중도 우파/좌파였는지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73] 해방기 중도파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조연현은 문련이나 문학가동맹 등 좌파보다도 오히려 중도파를 우익 민족문화건설의 최대 적으로 지목하여 집중 공

69) 김유중은, 중도파의 광범위한 스펙트럼 중에서 김기림의 좌표를 여운형과 같은 중도 좌파의 노선을 가진 것으로 분석한다.(김유중, 「해방기 김기림의 문학 활동과 이념 노선에 대한 일 고찰-김기림과 여운형」, 『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301쪽)

70) 이봉범, 앞의 글(2016), 214쪽; 한형구, 「해방 후 김기림의 행적(업적) 속에 담긴 문화정치사적 함의에 대하여」,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367~376쪽.

71) 이상우, 앞의 글, 147쪽.

72) 이상우, 위의 글, 147쪽.

73) 김영수가 중도 우파적 입장을 가졌다는 인식은 우익 연극단체를 동원한 문교부 주최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에 참여한 대표적 단체로 극협과 신청년이 함께 언급되는 데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해방기 소설 〈혈맥〉·〈행렬〉, 그리고 희곡 〈혈맥〉으로 보아 김영수의 입장은 중도 좌파에 가깝다.

격할 정도로 중도파 문제는 민감했다. 특히 남북협상 지지, 단선단정 반대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중도파 민족주의 문화인들이 집중적인 공격과 전향의 표적이 되었다. 그리고 공연검열, 교과서 수록 작품 삭제, 서적 발매금지 등 검열을 통한 문화계 내부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74]

김영수의 또 다른 해방기 소설 〈혈맥〉(『대조』, 1946.6.)에는 신탁통치 반대/지지 시위대가 부딪치는 장면이 나온다. 시위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반대 입장으로 만난다. 아버지는 우익정당 요직에 있으며, 철저한 우익정객인 의학박사이고, 아들은 "삼국외상회의 절대지지"를 주장하는 학생동맹 대표이다. 아들은 무기를 든 테러단에 의해 습격을 당하고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오고, 아버지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치료를 거부하다가 ("저놈이 공산당 패야.")[75] 아내의 울음소리에 병원복도로 들어서면서 소설은 끝난다. 이는 핏줄, 곧 '혈맥'의 이끌림에 의한 본능적인 행동으로, 좌우대립, 남북대립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한 민족, 한 핏줄에 의한 통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민족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같은 제목을 가진 희곡 〈혈맥〉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주제이다. 중도파 민족주의는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이 있었고, 그렇기에 우익측은 '민족'문학론이라는 '민족'을 재점유하는 새로운 프로파간다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민족정신앙양 전국문화인총궐기대회'와 같은 민족의 이름을 앞세운 대대적인 동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희곡 〈혈맥〉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거북이가 "도망가는 것은 지는 것이다."(211쪽)라며 방공굴의 현실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는 해방 공간에서 민족주의 중도파의 입장을 반영한 김영수의 작가적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월북이 이루어지고, 전향이 진행되는 국면에서도 남아있는 중도파의 입장은 해방 공간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마지막 공간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에 원칠은 비록 현실에서 무력하나마, 옥희가 주는 미군양말도 거절

---

74) 이봉범,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반란, 전향, 부역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대동문화연구』 10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소, 2019, 116~118쪽.

75) 김영수, 소설 〈혈맥〉, 『대조』, 1946.6, 235쪽.

하고, 너는 왜 진국이처럼 살지 못하느냐는 형 원팔의 말에도 반발한다. 진국이는 일본 징용나간 규슈 탄광 시절 노무과 사무원으로 조선인 징용자들을 밀고해서 죽이고도, 해방이 되자 미군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큰 적산가옥도 얻어 살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민족반역자이자 미군정 모리배이다. 원칠은 비록 '상갓집 개' 신세이지만("넌 와아, 그렇게 상갓집 숫카이터럼 휘지이 해서 돌아가네?" 205쪽) 진국이처럼 그렇게 살 순 없다. 친일 부역자의 과거가 묻히고 그들의 이름이 '우익 민족진영'으로 새롭게 윤색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를 잊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 땅굴 속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같이 여길 벗어나야 한다는 말을 반복한다. 김기림의 시 〈다시 우리들의 팔월로 돌아가자〉는 이러한 원칠의 주장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혈맥〉은 앞의 두 작품과 달리, 대중 장르물이 아닌 본격적인 신극 공연을 의도하고 만든 작품이다. 남녀 배역 비중도 골고루 나뉘어져 있고, 막마다 무대세트를 전환하는 익숙한 사실주의극 방식이 아니라 제1・2・3 방공호를 동시에 보여주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 기존과 다른 극작법을 시도하고 있다. 극중 2막에서 거북이(224~227쪽), 3막에서 옥희의 시점에서(253쪽) 전체가 조망되는 장면이 두 번 나온다. 이들의 시점에서 무대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두 번 강조하고 있다. 거북이와 옥희는 극중 가장 어린 세대이다. 그리고 둘 모두 원칠이의 팔월과 독립의 신념을 객관적으로 되비추어주는 거울 역할을 하고 있다. 원칠의 독립과 민족국가 건설의 흥분과 열기를 차가운 현실적 시선, 마치 카메라의 시선과 같은 냉정함으로 무대 전체를 침묵 속에서 조용히 다시 바라보게 한다.

〈혈맥〉의 결말 또한 중의적이다. 원칠은 멀리 공사장 인부들의 지경 다지는 소리에서 새로운 국가 건설의 희망을 전망하지만, 동시에 이 지경 다지는 소리는 한씨의 관에 "쩡쩡 관에 못 박는 소리"(264쪽)와 중첩되고 있다. 관뚜껑은 이미 닫혔고, 쩡쩡 못 박히는 소리는 해방의 열기, 해방 공간의 여러 가능성들을 모두 못 박고, 반공이라는 유일한 방향으로 대못을 박는, 일종의 조종(弔鐘) 소리처럼 들린다. 이 소리는 극중 내내 깡통영감이 두드려대던

탕탕탕탕 깡통소리와 조응하며 극 전체의 이미지를 압축하고 있다. 반공국가 단정수립 이후 중도파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고, 실제로 1948년 10월 여순사건을 통한 학살의 결과를 가져왔다. 김영수의 작품도 〈혈맥〉을 끝으로 반공극으로 이르는 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1948년 12월 남한만의 단독정부 "유엔 승인"을 축하하는 문화인총궐기대회의 초대장이 날라 들어왔다. 그렇다고 해서 1948년 이후 김영수가, 김기림처럼 공개적인 전향을 했는가의 자료는 아직 불충분하여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김영수는 여순사건을 소재로 육군 소위 처남과 공산주의자 매부가 서로 총부리를 겨누는 반공영화 〈성벽을 뚫고〉(한형모 감독, 1949.10.개봉)를 썼고, 동경 유엔군총사령부 방송 VUNC에서 8년간 대북 방송 작가로 재직했다. 그리고 1959년 귀국 후 5·16정권에 의해 기획된 대규모 특집 드라마 〈찬란한 아침〉 대본 집필을 거부한 이유로 남산에 끌려가 고문을 받고 결국 대본 집필에 참여하였다. 최요안, 이서구, 주태익, 김영수, 조남사, 임희재, 김자림 등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작가들이 모두 참여한 KBS 특집 드라마였다.[76]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상 해방 공간을 배경으로, 김영수와 극단 신청년 활동을 살펴보았다. 김영수와 극단 신청년은 해방기를 대표하는 작가와 극단이다. 특히 〈혈맥〉은 "해방 직후 월북 작가 작품을 제외한 남한의 희곡들 중에서 당대의 현실이 리얼리즘의 수법으로 극화된 대표적인 작품,"[77] "우익 극작가들의 희곡 중 드물게 균형감각을 갖고 있는 텍스트"[78]로, "차범석으로 대표되는 전후 사실주의 연극과의 관련성"[79]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

76) 김유미, 앞의 책, 287~292쪽.
77) 양승국, 앞의 글, 186쪽.
78) 전지니, 앞의 글(2012), 239쪽.
79) 전지니, 위의 글, 264쪽.

다. 곧 김영수의 〈혈맥〉은 유치진 〈토막〉(홍해성 연출, 극예술연구회, 1933)과 차범석 〈산불〉(이진순 연출, 국립극단, 1962)의 계보를 잇는 한국 사실주의극의 대표작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김영수에 대한 연극사적 평가는 유치진·오영진 중심의 반공우익 계열 연극인들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다. 이 글에서는 해방기 대표적인 극단과 작가로 극단 신청년과 김영수에 주목하고, 이를 냉전사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김영수는 극단 신청년 활동을 통해 미군정기와 단독정부 수립기를 배경으로 좌익 연극인들이 월북한 이후 중도파 민족주의자의 입장에서 해방기 현실을 다룬 작품들을 남겼다.

이러한 맥락에서 희곡집 『혈맥』에 수록된 세 작품의 의의 또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1949년 봄 시점에서 〈상해야화〉는 희곡집 수록 제목을 '반역자'로 바꾸면서 '민족반역자'의 문제를 다시 상기시키고 있고, 〈여사장〉은 소설 〈행렬〉에서 좌도 우도 아닌 태도를 버리고 동맹측 시민대회의 긴 행렬에 동참하는 주인공 현을 대중 코미디물로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혈맥〉에서는 기존의 대중극적 장르 관습이나, 명랑 코미디의 웃음기를 지우고, 해방의 열망으로부터 버려진, 해방 난민·독립 난민들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의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해방 공간의 두 개의 목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 있었던 거리의 공간들도 닫혀가고, 작가로서 그만큼 총체적인 조망이 절실해진 때이기도 하다. 〈혈맥〉은 해방 공간에 대한 작가 김영수의 마지막 조망이 담긴, 해방 공간에 대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949년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기, 특히 김영수의 일본 VUNC 재직 경력은 국내 냉전사 연구에서도 중요한 참조점을 마련해준다. 한국전쟁기와 1960년대 방송극 시기에 대한 김영수 연구도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간략하나마 이 시기에 대한 김영수의 행적을 남겨두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기 김영수는 박영준과 함께 종군작가로 동부전선 등 최전선에서 작품 취재 활동을 벌였고, 대구방송국에서 드라마를 쓰고 연출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전쟁 중 공연으로는 예술극회 작품 〈붉었던 서울〉, 종군작가단 문인극 〈고향

사람들〉(1막, 김영수 작・연출, 대구자유극장, 1952.3.1; 부산극장, 1952.3.2. 김팔봉, 정비석, 최정희, 장덕조 등 출연, 문총 3・1기념예술제)을 공연하였다. 그리고 1952년부터 1959년까지 동경 및 오키나와[80] VUNC 심리전과실에서 〈자유의 소리〉 드라마 작가로 8년간 활동하였다. 곧 김영수는, 1954년 1월 포로교환이 끝날 때까지 장장 4년간 끈 판문점 회담, 1954년 이른바 '사사오입'으로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이승만 대통령 선거 등 1950년대 불안한 정국 동안 일본에서 대북・대남 방송 〈자유의 소리〉 극작가로 활동하였다. 1953년 휴전은 되었지만, 유엔군은 여전히 일본에 주둔해 있었고, 유엔군 방송국도 여전히 대북・대남 방송을 계속하고 있었다. 1959년 귀국한 김영수는 때마침 열리고 있었던 방송극 시대와 맞물려, 1960년대 대표적인 방송극 작가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김영수는 1960년대에도 여전히 VUNC 연속방송극 〈별을 타고 온 사나이〉(VUNC, 이경재 각색, 전17회, 1963.5.20.부터 방송. 매일밤 7 : 40~8 : 00. 북한 청취자를 위한 재방송 밤 9 : 40, 다음날 아침 6 : 10, 8 : 10),[81] 〈김삿갓 북한방랑기〉(KBS 제1라디오, 1964.5.18. 방송시작, 24년간 방송)[82] 등 프로파간다 방송드라마를 쓰고 있다.

VUNC 활동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1970년이다. 일본의 유엔군 총사령부 방송 VUNC는 미군에 의해 직접적으로 운영된 대표적인 심리전 기구이다. VUNC는 데탕트 시기, VUNC의 설립 당시와 다른 상황, 곧 VUNC가

---

80) 1956년 봄 유엔군 사령부가 동경에서 오키나와로 이전하면서, 김영수는 1월 한달간 휴가로 서울을 잠시 방문했다. 이때 『경향신문』에 매일 '본대로 들은대로'라는 칼럼을 연재하였다.(김영수, 「본대로 들은대로 1~16」, 『경향신문』, 1956.1.4.~1.29.) 오키나와 극동사령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군 재편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1957년 4월 초 미 국방성은 동아시아 지역 군사체제를 크게 개편했다. 우선 도쿄의 극동군사령부를 해체하고, 하와이에 태평양지구사령부를 설치하고, 7월에는 도쿄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이동하면서 주한미군사령부가 창설되었다.(정영신, 「오키나와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기지의 건설・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3, 한국사회사학회, 2007, 158~159쪽)

81) 1960년 8월 소련제 MIG기 몰고 월남한 귀순 괴뢰군 정낙현 소위 실화 소재극. 기사, 「정낙현 군의 이야기 'VUNC'서 방송, 20일부터」, 『동아일보』, 1963.5.10., 6쪽.

82) 작가로는 이철주, 김광섭, 최풍 중심, 그외 김영수, 주태익, 박우보, 백전교, 윤혁민, 최홍목, 김천 등이 참여하였다. 북한 동포의 참상을 알려주자는 의도로, 낮 12 : 55, 5분 드라마로 방송되었다. 기사, 「〈김삿갓 북한방랑기〉 12일로 8천 회」, 『경향신문』, 1988.1.5., 12쪽.

‘유엔군 사령부의 소리’라는 명칭으로 송출되고 있지만, 실제 UN과는 무관하고 전적으로 미국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UN 내부의 민감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하며, 남북한 한국인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역할은 한국정부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등으로 정리, 해체되었다.[83] 그렇다면 1950년대는 물론 1960년대까지도 김영수의 활동에 KBS와 VUNC 활동경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남은 질문들은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83)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74, Lot File 73D360, Box 4(5 of 10), VUNC.(생산기간; 1970.2.7., 발신자/수신자 : Porter/AmEmbassy, Seoul/Dept. 사료유형 : 전문) VUNC의 목표, 운영, 효과, 입장 요약은 다음을 참고 : RG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Subject Files of the Office of Korean Affairs, 1966-74, Lot File 73D360, Box 4(5 of 10), Voice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VUNC) (U).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소장자료 참고)

▌참고문헌

1. 자료

김영수, 소설「혈맥」,『대조』, 1946.6.

_____, 소설「행렬」,『백민』, 1947.3.

_____,「철뚝을 넘은 곳」,『문학예술』, 1956.3.

_____,『소복』, 정음사, 1949.2.

_____,『혈맥』, 영인서관, 1949.4.

김동권 편,『현대희곡작품집(해방기 : 1945~1950년) 1』, 서광학술자료사, 1994.

김유미,『작가 김영수 1~2』, 민음사, 2002.

서연호・장원재 편,『김영수 희곡시나리오 선집 1~7』, 연극과인간, 2006~2007.

장원재 편,『김영수 라디오 드라마 극본 선집 1~2』, 한양대학교출판부, 2010.

김의경・유인경 편,『이진순 선집1』, 연극과인간, 2010.

유치진,『동랑 유치진 전집9－자서전』, 서울예대출판부, 1993.

작자미상, <똘똘이의 모험46 : 아버지의 가방12>, 1948 : Korean Broadcasting System radio broadcast transcripts, Hoover Institution Archives.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http://archive.history.go.kr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https://www.kmdb.or.kr

2. 단행본

권헌익, 이한중 역,『또 하나의 냉전－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013.

김득중,『빨갱이의 탄생－여순사건과 반공국가의 탄생』, 도서출판선인, 2009.

김영희,『한국전쟁기 미디어와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김학재,『판문점 체제의 기원－한국전쟁과 자유주의 평화기획』, 후마니타스, 2015.

백원담・강성현 편,『열전 속 냉전, 냉전 속 열전－냉전 아시아의 사상심리전』, 진인진, 2017.

양승국,『한국현대극강론』, 연극과인간, 2019.

이내수,『이야기 방송사』, 씨앗을뿌리는사람, 2001.

백범사상연구소 편,『백범어록』, 사계절, 1973; 1995 2판.

한국만화100주년 시사만화위원회,『한국 시사만화 100년』, 알다, 2010.

3. 논문

김옥란,「냉전 센터의 기획, 유치진과 드라마센터－아시아재단 유치진・신협 파일을 중심으로」,『한국학연구』 47,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_____,「유치진과 미국, 드라마센터와 문화냉전」,『한국학연구』 5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김유중,「해방기 김기림의 문학 활동과 이념 노선에 대한 일 고찰－김기림과 여운형」,『한국현대문학연구』 48, 한국현대문학회, 2016.

박선영,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극장의 영화 상영 관행－실연무대와 무대인사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56, 한국극예술학회, 2017.

박수현, 「점령과 분단의 설득기구－미군정 공보기구의 변천(1945.8.~1948.5.)」, 『해방의 공간, 점령의 시간』, 푸른역사, 2018.

양승국, 「1945~1953년의 남북한 희곡에 나타난 분단문학적 특질」, 『문학사와 비평』 1, 1991.

이봉범, 「냉전과 원조, 원조시대 냉전문화 구축의 역동성－1950~60년대 미국 민간재단의 원조와 한국문화」, 『한국학연구』 39,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5.

_____, 「냉전과 월남지식인, 냉전문화기획자 오영진」, 『민족문학사연구』 61, 민족문학사학회, 2016.

_____, 「냉전 금제와 프로파간다－반란, 전향, 부역 의제의 제도화와 내부냉전」, 『대동문화연구』 107,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이상우, 「해방직후 좌우대립기의 희곡에 나타난 현실인식의 양상－우익측의 유치진, 오영진, 김영수 희곡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2, 한국극예술학회, 1992.

이승희, 「공연법에 이르는 길－식민지검열에서 냉전검열로의 전환, 1945~1961」, 『민족문학사연구』 58, 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전지니, 「1940년대 희곡연구－역사・지정학・청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2012.

_____, 「김영수 작 <혈맥>(1948)의 변주양상 연구－영화 <혈맥>(1963)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3.

정영신, 「오키나와의 기지화・군사화에 관한 연구－기지의 건설・확장과 반환의 역사적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3, 한국사회사학회, 2007.

한형구, 「해방 후 김기림의 행적(업적) 속에 담긴 문화정치사적 함의에 대하여」, 『어문론집』 58, 중앙어문학회, 2014.

林文淇, 「007電影問世五十週年回顧台語間諜片風潮」, 『放映週報』, 2013.7.5.

Kim Young-soo in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Cold War

－Focusing on the works of the theatrical company Sinchengnyeon(新青年)－

Kim Ock-Ran*

Kim Young-soo(金永壽) and the theater company Sinchengnyeon(新青年, Young man) are writers and theater companies representing the liberation period. Kim Young-soo's works in the year of application for the theater company left a balanced view of the reality of the liberation perio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entrists after leftist theater performers defected to North Korea against the backdrop of the US military rul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t government. However, the historical evaluation of Kim Young-soo has been neglected compared to the evaluations of anti-communist right-wing writers centered on Yoo Chi-jin and Oh Young-jin. The theater company Sinchengnyeon worked as a representative troupe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long with the theater company Geughyeob(劇協), However, due to the preconceived notion that it is a popular theater company, proper research was lacking. From 1947 to 1948, Kim Young-soo worked as an exclusive writer for the theater company. Kim Young-soo's representative works "Shanghai Hwahwa(上海夜話, Shanghai Night Story)", "Yeosajang(女社長, The Lady President)", and "Hyeolmaeg(血脈, Bloodline)" are all works by the theate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Theater and Acting, Far East University

company. The period of activity during the application year for the theater company was when the South Korean theater world was reorganized into right-wing performers after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and the defectors of the playwrights defected. The year of application for the theater company also participated in the 1st and 2nd National Theater Contests(1948, 1954) hos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 controlled theater festival for the mobilization of right-wing theater performers. However, it is suggestive that Kim Young-soo's playwright activities ended with 1948's "Hyeolmaeg(血脈)" as the actual last work. In 1949, Kim Young-soo published a novel and a playbook, arranging the year of application for the theater company and 10 years of writing. Kim Young-soo's three representative works are included in this playbook *Hyeolmaeg(血脈, Bloodline)*, and are works that can confirm the specific aspects of the Cold War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in the realm of popular dramas. Through these works, we can examine the popularity of popular female drama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secularized Cold War logic of 'American No. 1', and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the centrists who do not give up their will to independence.

Key words : Kim Young-soo(金永壽), Cold War, Liberation period, Geugdan Sinchengnyeon(劇團 新青年, The Theater Group Young man), VUNC, *Sanggaeyahwa(上海夜話, Shanghai Night Story), Yeosajang (女社長, The Lady President), Hyeolmaeg(血脈, Bloodline)*

논문투고일 : 2021년 7월 26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8월 14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8월 23일